

## 목공예

목공예는 오랜 역사를 지니며 다종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칠기, 바구니 공예 등 다양한 공예품에서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에는 그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 열도의 다양한 기후와 변화무쌍한 지형 덕분에 일본에는 목공예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목재가 풍부하게 자생했습니다. 조몬 시대(기원전 1만 년~400년) 유적에서는 목제품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구와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었고, 예술작품과 건축물도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현재 목공예는 예술의 주요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목공예 기법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 ‘사시모노(指物)’, 하나의 목재를 파내는 ‘구리모노(剗物)’, 뜨거운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든 목재를 구부리는 ‘마게모노(曲物)’, 물레를 사용하는 ‘히키모노(挽物)’의 4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어느 기법이든 온도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목재가 휘거나 갈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인은 나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시카와현은 칠기도 유명하지만, 목공예는 칠기와 함께 발전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칠기는 밀바탕으로 목공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뭇결을 그대로 살리는 야마나카 칠기뿐만 아니라 가나자와와 와지마의 아쓰누리(옷칠을 두껍게 겹겹이 칠해 튼튼한 도막을 형성하는 기법)로 화려한 장식이 된 칠기에서도 옷을 칠하기 위한 토대로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공품이 필수적입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히미 고도(1906~1975), 가와기타 료조(1935~), 하이소토 다쓰오(1941~2015) 등 목공예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